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5, Vol. 21, No. 3, 339~353.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편집증적 심리특성*

홍 성 원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내재하는 편집증적 심리 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편집성향과 갖는 관계성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편집증의 인지적 특성으로 밝혀진 변인들의 작용을 평가하였다. 편집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MPI-2의 편집척도 Pa 및 Harris -Lingoes 순박성 소척도 Pa3를 사용하였고, 인지적 특성으로는 편집증의 핵심변인인 이분법적 사고와 귀인양식을 측정하였다. 소수집단은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노숙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편견은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을 통합하여 산정하였다. 557명의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Pa3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약하고 이분법적 사고가 높은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귀인양식에 있어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편집성향, 순박성 소척도 Pa3, 이분법적 사고, 귀인양식

---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이인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Tel : 033-250-6855, E-mail : inheyi@kangwon.ac.kr

www.kci.go.kr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한국사회가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편견이 새롭게 대두되고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리학계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왔다(김혜숙, 1999; 노경란, 방희정, 2009;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2001). 편견에서 기인한 차별이나 폭력 등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상해를 가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점차 정신병리의 범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Bell, 2004; Poussaint, 1999, 2002). 이처럼 무엇을 '비정상성'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동체가 어떠한 유형의 행위와 집단에 개입하여 제한과 압력을 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동정과 연민, 도덕심이 결여된 행위와 증오, 편견, 폭력적 행위를 비정상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한과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적 사회로 이행하는 변화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 및 차별과 정신병리간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주요한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편견은 '상대방이 특정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여 지니고 있는 태도'를 뜻하며 대체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한규석, 2002).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신념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편견적 태도를 측정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념적 측면은 고정관념으로서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뜻하며, 감정적 측면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감정을 말한다(김혜숙, 1999). 몇몇 연구자들(예; 김상학, 2004; 김혜숙, 2000; 이하령, 2007)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고정관념과 감정적 호오(好惡)와 더불어 대상을 얼마나 가까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감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의사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행동과 연관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견적 행동이나 차별을 직접 관찰하고 평정할 수 없는 질문지 연구에 있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적 측정치로서의 활용도가 크다고 하겠다.

편견과 편집증적 심리특성 간의 잠재적 관련성

Meissner(1986/2002)는 편견이 편집적 역동성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편집증의 기제와 유사한 편견적 태도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편견은 내부로부터 오는 반감을 수반하는데 그 기저에는 공포 및 분노가 관련되어 있고 이때 나타나는 적대감과 거부는 무의식적 욕구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편견적 가치절하는 자신의 성격요소를 부인하고 편견의 대상에게 분노나 적대감을 전가하는 투사기제(projection)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Werner(1984) 역시 편견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해석의 원인이 되는 방어기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www.kci.go.kr

는 병리적인 방어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발달 상의 문제가 편견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편견의 과정에 있어 이러한 방어구조가 '왜 싫어하는지(why I hate)'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편집적 역동성의 핵심 또한 자신의 문제나 단점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적의와 분노를 외부대상에 투사한다는 점이다(Cameron, 1963; Shapiro, 1965). Shapiro(1965)에 따르면, 편집증은 자신이 지닌 용납할 수 없는 느낌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발생한다. 억압된 충동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이를 외부에 귀인하게 되면 죄책감이 줄어들고 고통감을 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문제나 단점을 타인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적의와 분노를 투사하게 된 결과라는 역동적 설명은 편집성향/편집증이 편견과 관련된 가해자 특성임을 시사해 준다. 전통적인 투사이론에서 언급된 인지적 편향 및 귀인편향은 최근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왔다(엄홍식, 박기환, 2008; 이훈진, 2001, Candido & Romney, 1990; Kinderman & Bentall, 1997). 한편, 임상양상에 있어서도 편집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종종 부당하게 취급 받았다고 느끼고, 쉽게 논쟁적으로 바뀌며, 오랫동안 악의를 품고 복수를 꿈꾼다(민성길, 2006). 이들은 권위와 서열을 중시하고 시기심, 질투, 원한 등을 지녔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권력의 약자층인 소수집단에게 그러한 적대감과 편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증적 심리특성

편집성향은 정상인들이 나타내는 약한 수준의 의심과 불신에서부터 심한 피해망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속성을 갖는다(이훈진, 이명원, 2000). 편집성 성격장애[1]는 타인이 악의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유병율은 일반인구에서 0.5~2.5%, 정신과 외래환자에서 2~10%로 알려져 있으며(이훈진, 이명원, 2000) 지역사회를 표본으로 진행된 Torgersen 등(2001)의 연구에서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유병률이 2.4%로 나타나 성격장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편집성은 임상장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다면적인성검사(이하 MMPI)의 임상척도 중 편집척도 Pa(이하 Pa)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75T 이상) 관계사고나 피해망상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점수가 극단적으로 높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의 심각성이 줄어들고 독특한 성격적 특성이 나타난다(김중술 등, 2005). 가령, 약간 높은 점수대에서는(55-64T) 과도하게 예민하고 경계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고 남을 잘 믿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표준화된 MMPI-2 한국판이

1) 본 연구자는 편견이 다양한 요인들에 바탕을 둔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임상집단뿐 아니라 비임상집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출현할 수 있는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아직까지는 소수집단에 대한 강한 편견이 진단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편견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일반인 집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편집성은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편집성 조현병이나 심각한 망상장애를 의미하지 않으며 편집성 성격장애 수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사용되고 있다. MMPI-2의 Pa는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있거나 나를 해치려고 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늘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을 속으로는 싫어한다'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Pa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피해의식(이하 Pa1), 예민성(이하 Pa2), 그리고 순박성(이하 Pa3)을 나타내는 세 가지 Harris-Lingoes 소척도로 나뉠 수 있다.

각 소척도는 타인에 대한 태도 측면에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가령, Pa1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위협적인 곳으로 보며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Pa2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예민성과 신경질적 성향을 측정하므로 이 점수가 높을 경우,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활동을 찾을 수 있다(김중술 등, 2005). 반면, P3 점수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Pa3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간 부당한 수단도 쓸 것이다', '기대 이상으로 친절하게 구는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다' 등을 포함한 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문항에 대하여 '아니다'로 답하는 경우 Pa3 점수가 높아진다. Pa3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에 대해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충동이 없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렇듯 Pa3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순진한 태도를 보고하나 그 이면에는 경직된 태도가 내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김중술 등, 2005; Friedman, Lewak, Nichols, & Webb, 2001).

임상에서는 편집증상을 지니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의 증상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환자들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런 환자는 비교적 명백한 Pa 문항들을 피해가면서 답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Pa 점수는 낮아지는 반면 Pa3 점수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낮은 Pa 점수가 편집성을 시사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김중술, 2010; Friedman et al., 2001; Greene, 1991; Lachar, 1974). 실제로 정신과 표집에서 낮은 Pa 집단이 Pa3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황성훈, 양귀화, 원성두, 2006) MMPI-2 Pa의 이중구조가 경험적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현우와 이훈진(2006)은 Pa가 낮으면서 Pa3가 높은 집단이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편집증의 하위유형이라는 가정을 임상집단 및 대학생표집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편견 연구에서는 특유의 경계성을 나타내는 Pa3 점수가 높고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경계성과 방어성을 의미하는 Pa3 점수가 매우 높은 사람일수록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편견의 정도는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편집증의 핵심적인 인지적 특징으로 규명된 이분법적 사고는 타인을 적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분법적 사고는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을 둘로 나누어 판단하는 방식으로서 다양하고 연속적인 가능성과 선택지 가운데 극단적인 값을 취하는 방식이다(황성훈, 이훈진, 2009a). 옳고 그름, 선과 악, 적과 동지 등의 판단이 이에 해당되며 흑백 논리로 불리기도 한다. 황성훈과 이훈진(2009b)은 '편집증 집단이 이분법적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고 편집증적 특성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생활사

www.kci.go.kr

건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가정을 대학생 표집에서 검증한 바 있다.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편집성향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이분법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편집성향 집단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차원은 '편가르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편가르기 기제를 고려해볼 때 이분법적 사고가 강할수록 편견의 인지적 성향 또한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편집증 집단은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시도로써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이훈진, 2000;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이와 관련하여 편집성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자기와 관련된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며 부정적 결과를 타인에 귀인하여 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한다'는 가설이 검증되기도 하였다(이명원, 김중술, 신민섭, 2003). 또한 편집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다른 사람의 긍정적 행동을 더 적대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훈진, 2001). 이와 같은 편집적 심리특성을 감안할 때 자기개념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탓하기 쉬운 소수집단에게 그러한 부정적 결과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편집증의 주요 인지적 특성인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 성향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제기 및 연구과제

심리학내에서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두어왔다(Chakraborty, McKenzie, Hajat, & Stansfeld, 2009; McKenzie, 2006; Sue, Capodilupo, & Holder, 2008). 인종주의와 같은 차별은 종종 편집증(paranoia)과 함께 거론되는데, 인종차별이나 계층간 차별이 심한 문화권의 사람들, 사기나 범죄의 피해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편집증이 많다(이훈진, 이명원, 2000)는 보고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죄수, 난민, 청각능력이 손상된 사람 그리고 노인과 같은 특정집단의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부분적 의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Durand & Barlow, 2006).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문제나 단점을 타인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적의와 분노를 투사(projection)하게 된 결과 나타난다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역동적 특징은 차별과 관련된 가해자 특성과의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편집증은 차별 피해자의 적응적 반응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자신만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끼거나 권력과 서열을 중시하며 약해보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과 같은 임상적 양상(민성길, 2006)을 고려해볼 때 차별의 가해자가 지닌 주요한 심리기제나 성격적 특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정집단에 대한 극도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극심한 편견(extreme bias)'을 편집증, 망상장애 또는 'Extreme Bias Disorder'와 같은 별도의 정신병리로 범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어 왔다. Bell(2004)과 Poussaint(1999, 2002)이 그 대표적인 심리학자로서, 그들은 임상적 경험에 바탕하여 인종주의가 망상과정, 걱정의 결과 또는 개인 성격역동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심한 편견을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 DSM 진단체계에는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차별적 행

www.kci.go.kr

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극심한 편견을 지닌 사람 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의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점에서 이는 정신건강/정신병리와 관련된 문제임이 분명하다(APA, 2006).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조망한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는 서구사회의 인종주의와 달리 편견의 기제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고 그 전개의 양상이 다른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식 진단체계를 그대로 차용하여 따르는 한국 임상현실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편집성향과 그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편집성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MMPI-2 편집척도인 Pa 및 Harris-Lingoes 순박성 소척도 Pa3를 함께 고려하였다. 인지적 특성으로는 편집증의 핵심변인인 이분법적 사고와 귀인양식을 측정하였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을 통합하여 산정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점차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 호남인,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노숙인 중에서 피험자 집단의 다수가 내집단으로 포함되는 여성과 호남인은 제외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외현적으로는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노숙인은 점차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자가 진행한 예비연구[2]에서도 좋고 싫음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 개인별 태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에 있어 적절한 측정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방어적 경계와 감추어진 적대감이라는 편집증의 특성을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함에 있어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보았다. Pa는 타인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소척도 Pa1(피해의식), Pa2(예민성), 그리고 Pa3(순박성)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Pa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간에 단순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타인에 대한 도덕적 미덕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타인의 정직성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나타내는 등 은근한 편집성을 반영하는 Pa3 점수가 높은 사람은 질문지를 통한 명시적 측정에 있어서는 편견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고, 부정사건에 대하여 외부귀인을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순박성 소척도 Pa3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약할 것이다.

가설 2. 이분법적 사고가 강한 집단은 약한 집단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할

2) 편견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수집단을 결정하고 관련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학부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소수집단에 대한 연상어 및 동의어를 쓰도록 하였고 좋음과 싫음의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케 하였다.

www.kci.go.kr

것이다.

가설 3.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을 하는 집단은 내부귀인을 하는 집단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한 종합대학 학부생 561명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결측문항이 많은 4명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557명의 질문지(99.29%)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29세(*SD* = 2.18)였으며, 남녀 각각 297명과 260명이었다. 남자의 연령 평균은 21.06세(*SD* = 2.46), 여자는 19.42세(*SD* = 1.37)였다.

측정도구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소수집단(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노숙인)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인지, 정서, 행동 상에 나타난 편견의 평균값이며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산출하였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점수의 범위는 3~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편견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인지. 김상학(2004)이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외국인노동자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똑똑하지 못하다', '게으르다'; 노숙인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신뢰하기 어렵다', '폭력적이다'; 동성애자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부도덕하다'. 응답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동의한다(7)까지 동의 정도를 표시하는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s α)는 .80이다.

정서. 김상학(2004)이 사용한 부정적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하고 싶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함께 있는 게 어색할 것 같다'. 이들 문항은 세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동감한다(7)까지의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86이다.

행동. 사회적 거리감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Bogardus(1933)와 Westie(1959) 등의 측정문항을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김상학(2004)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7개의 문항을 세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7)로 이루어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나는 ____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____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____가 가족의 배우자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등. 이들 문항의 점수가 낮을수록 편견적 행동이 강한 것을 의미하므로 명시적 편견을 산출할 때에는 역채점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94이다.

www.kci.go.kr

MMPI Pa 척도

표준화된 MMPI-2 한국판의 편집척도 Pa를 사용하였다. Pa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해의식, 예민성 그리고 순박성의 세 가지 Harris-Lingoes 소척도로 구분될 수 있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순박성 소척도 Pa3는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닌 것을 반영한다. Pa3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겉으로는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충동이 없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간 부당한 수단도 쓸 것이다', '기대 이상으로 친절하게 구는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다' 등에 '아니다'로 답하는 경우 Pa3 점수가 높아진다. 표준화된 MMPI-2 한국판의 Pa 척도 평균은 남녀 각각 11.89점과 12.18점이었으며, Pa3는 남녀 모두 4.09점으로 보고되었다(김중술 등, 2005).

개정된 이분법적 사고 지표

연속적인 대안 중 양극단을 취하는 사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황성훈(2007)이 개발한 척도이다. '절반의 실패는 전부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판단할 때 나의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린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모 아니면 도이다' 등을 포함한 30문항이다. 이분법사고, 실무율적 사고,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 편가르기, 학업에서의 이분법, 어법상의 이분법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의 점수 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분법적 사고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황성훈(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는 .92,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90로 나타났다.

귀인양식 질문지

이훈진(1997)이 사용한 총 12개의 문항 중 부정적 사건과 관련된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만약 중요한 시험에서 탈락한다면', '친한 친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등과 같은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쓰고 외부 귀인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 범위는 1~7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사건에 대해 내부로 귀인하기 보다는 외부로 귀인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42이다.

자료 분석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상·하위 집단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7.0을 활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소수집단에 대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편견과 Pa 척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Pa3와 이분법적 사고는 소수집단의 편견과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였다. 즉, Pa3와 편견은 부적 상관을 지니고 있어 순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가 강할수록 소수집단에

www.kci.go.kr

표 1. 편집성향, 인지적 특성,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간의 상관

	MMPI-2 Pa	Pa3	이분법적 사고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MMPI-2 Pa	1				
· Pa3	.366***	1			
이분법적 사고	.216***	-.284***	1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	.046	-.055	.077	1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025	-.168***	.338***	-.007	1
평균	11.01	4.99	2.20	2.92	11.30
표준편차	3.39	1.76	0.51	0.82	2.74

* $p < .05$, ** $p < .01$, *** $p < .001$

대한 편견의 정도 또한 높았다. 이들 변인간의 관계성이 확인됨에 따라 임상집단과 유사성을 지녔을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점수 집단의 두드러진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a3 점수의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집단 구분은 Pa3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위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구분한 선행연구(이현우, 이훈진, 2006)의 관례를 따랐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할 때 Pa3의 원점수 7점 이상이 상위집단, 3점 이하가 하위집단에 해당하며 각 집단에 속하는 인원은 전체 표본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선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 상하위 20%로 편집 집단을 구분한 사례와 비슷하다(황성훈, 이훈진, 2009). 분석 결과, Pa3 점수로 구분한 두 집단은 소수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235) = -3.41$, $p < .01$. 즉, Pa3가 높은 집단의 명시적 편견점수는 10.75점으로 Pa3가 낮은 집단의 11.90점보다 낮아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분법적 사고 점수의 상위 20% 집단과 하

표 2. Pa3점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평균과 표준편차

	Pa3 낮은 집단 (n = 118)	Pa3 높은 집단 (n = 119)	t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11.90(2.60)	10.75(2.67)	-3.41**
· 이주노동자	3.22(1.02)	2.90(1.01)	-2.45*
· 동성애자	3.79(1.44)	3.44(1.34)	-1.90
· 노숙인	4.91(1.04)	4.41(1.05)	-3.69**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 $p < .05$, ** $p < .01$, *** $p < .001$

www.kci.go.kr

표 3. 이분법적 사고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명시적 편견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분법적 사고가 낮은 집단(n = 111)	이분법적 사고가 높은 집단(n = 107)	t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9.71 (2.81)	12.45 (2.51)	7.59***
・이주노동자	2.41(1.01)	3.44(1.08)	7.23***
・동성애자	2.97(1.43)	4.10(1.50)	5.67***
・노숙인	4.32(1.30)	4.91(1.09)	3.63***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2) * $p < .05$, ** $p < .01$, *** $p < .001$

위 20% 집단 각 107명과 111명에 대한 t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들의 명시적 편견점수는 각 12.45점과 9.71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t(216) = 7.59$, $p < .001$. 이분법적 사고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명시적 편견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과 소수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을 하는 집단과 그에 대해 내부귀인을 하는 집단의 명시적 편견은 각각 11.45(2.60)와 11.61(2.87)로 나타났다. 즉, 귀인양식에 따른 집단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점수 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t(251) = .48$, ns.

논 의

본 연구는 편견과 편집성향이 공통적으로 투사기제에 기반한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편집성향과 그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첫 번째 탐색적 연구이다. 편집증의 이중구조를 고려하여 MMPI-2 편집척도 Pa와 함께 Harris-Lingoes 순박성 소척도인 Pa3를 변인으로 하였고, 인지적 특성으로는 편집증의 핵심변인인 이분법적 사고와 귀인양식을 측정하였다. 소수집단은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노숙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편견은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을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문제로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고찰함에 있어 비임상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편견이 다양한 요인들에 바탕을 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편견은 일반인에게서 광범위하게 출현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임상집단에서 관찰되는 타인 및 자신에 대한 망상 수준의 인지적 왜곡이나 이로 인한 일탈적 행동보다는 은근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편견적 태도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임상집단의 경우에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지녔다는 이유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모집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집성향을 중심으로 편견과의 관계성을 탐색한다고 할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단, 일반 성인의 경우 자신의

www.kci.go.kr

직업,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수집단에 대한 갈등경험이 달라 편집성향에 따른 편견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모든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대학생 집단을 표본으로 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결과, 연구 가정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MMPI-2 편집척도 Pa와 소수집단에 대한 명시적인 편견 간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편집증의 경계성과 방어적 태도는 Pa 편집척도의 세 가지 소척도 중 순박성을 나타내는 Pa3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중술, 2010; 이현우, 이훈진, 2006; 황성훈 등, 2006; Friedman et al., 2001; Greene, 1991; Lachar, 1974). 본 연구에서 Pa3 점수가 높은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순박성 소척도 Pa3는 겉으로는 자신의 편집사고를 부정하고 자기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Pa3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가 검증됨에 따라 편집증의 방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Pa3 척도를 핵심변인으로 편견을 조망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분법적 사고와 같은 인지도식 상의 경직성과 흑백논리가 실제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이분법적 사고가 Pa, Pa3와 각각 정적상관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연구보다 해석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집증의 주요 인지적 특성인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편견과 편집증의 경로(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차별기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력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편집증의 투사기제와 관련된 부정사건에 대한 외부귀인과 편견과의 상호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정확한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편집증의 방어적 태도를 고려했을 때 암묵적 귀인양식의 측정도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편견에 내재하는 편집증적 특성을 파악하는 취지로 비임상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편집성 성격장애 수준의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 편견이 높은 집단이 편집증적 심리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후 편집증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의 관계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때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은 편집성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편집 적개심과 의심이 많은 것이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서 소수집단에게 더욱 표출되는가, 아니면 대상에 관계없이 적개심과 편견을 지니는가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수집단 이외의 다수(권력) 집단에 대한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소수집단에 대해 극심한 편견과 차별적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의 정신병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www.kci.go.kr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진단체계 내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극도의 편견을 나타내는 사람을 치료가 필요한 임상군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점차 집단 간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극심한 편견을 지닌 사람들의 정신병리적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교정적, 치료적 함의를 높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편집성향, 인지적 특성,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관한 첫 번째 탐색적 연구로서의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후속 연구의 다양한 가설 생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69-206.

김중술 (2010).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 Ⅱ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김혜숙 (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민성길 (2006).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 차별 및 자존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19-136.

엄홍식, 박기환 (2008). 피해편집증과 처벌편집증의 귀인양식 및 추론편향. 인지행동치료, 8(1), 57-73.

이명원, 김중술, 신민섭 (2003). 자기개념 위협이 편집성향자의 주의 및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71-91.

이하령 (2007).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연구: 고정관념,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우, 이훈진 (2006). 경계형, 외현형 편집증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449-465.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훈진 (2000). 편집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주의 및 기억편향. 심리과학, 9(1), 77-99.

이훈진 (2001).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43-452.

이훈진, 이명원 (2000). 편집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성훈, 양귀화, 원성두 (2006). 정신과 표집에서 낮은 Pa에 대한 역해석의 타당성. 정신병리학, 15(1, 2), 3-10.

황성훈, 이훈진 (2009a). 이분법적 사고와

www.kci.go.kr

MMPI-2로 측정한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4.

황성훈, 이훈진 (2009b). 편집증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11-102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Committee of Black Psychiatrists of the Council of Minority Mental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2006). *Resolution agains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ir adverse impacts on mental health.*

Bell, C. (2004). Racism: A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 *55*(12). http://ps.psychiatryonline.org/doi/full/10.1176/appi.ps.55.12.1343.에서 2015, 4, 30 인출.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A: Mifflin.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Chakraborty, A. T., McKenzie, K. J., Hajat, S., & Stansfeld, S. A. (2009). Racism, mental illness and social support in the UK.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12), 1115-1124.

Durand, V. M., & Barlow, D. H. (2006). *Essentials of abnormal psychology*(4th edition). Belmont, CA: Thomson Wardsworth.

Friedman, A. F., Lewak, R., Nichols, D. S., & Webb, J. T. (2001). *Psychological assessment with the MMPI-2.*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Greene, R. L. (1991). *The MMPI-2/MMPI*: An interpretive manual. Boston, MA: Allyn and Bacon.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341-345.

Lachar, D. (1974). *The MMPI: Clinical assessment and automated interpretation.*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McKenzie, K. (2006). Racial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Psychiatry*, *5*(11), 383-387.

Meissner, W. W. (2002). 편집증과 심리치료.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86년에 출판).

Poussaint, A. (1999, 8, 26). They hate. They kill. Are they insane? *New York Times*, 17.

Poussaint, A. (2002). Is extreme racism a mental illness? Yes: It can be a delusional symptom of psychotic disorder.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76*(1), 4.

Shapiro, D. (1965). *Neurotic Styles.* New York: Basic Books.

Sue, D. W., Capodilupo, C. M., & Holder, A. M. B. (2008). Racial microaggressions in the life experience of Black American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9*(3), 329-336.

Torgersen, S., Kringlen, I., & Cramer, V. (2001). The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Arch Gen Psychiatry, 58*(6), 590-596.

www.kci.go.kr

Werner, D. (1984). Towards a theory of prejudice.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11*, 407-412.

논문 투고일 : 2015. 01. 13
1 차 심사일 : 2015. 02. 16
게재 확정일 : 2015. 06. 1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5, Vol. 21, No. 3, 339~353.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and Paranoid Characteristics

Sung Won Hong
Student Counseling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Hyae Yi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paranoid tendencie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prejudice. Revised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Pa scale, Harris-Lingoes Naivetes(Pa3), dichotomous thinking(DT), attributional style,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migrant workers, homosexuals, and homeless people) were administered to 557 college students. High Pa3 group was significantly low in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Also, the group with higher DT showed more prejudice toward minorities.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paranoid tendency, Harris-Lingoes Naivetes(Pa3), dichotomous thinking, attributional style

www.kci.go.kr